

“더 깊은 감사”
“A Deeper Thanks”
(하박국 Habakkuk 3:17-19)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참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래도 일년에 한번이라도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또 그동안 준비해온 웨슬리 홀의 재건축이 오랜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첫 삽을 뜨는 기공의 예식을 갖게 된 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이 기쁜 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Dear church members at KUMC, how are you? I hope you had a great week. Today is a joyful and also thankful day because we give thanks to the Lord on this Thanksgiving Sunday as we look back on the past year. I think it is fortunate to have this opportunity of taking time to think about and express our thanks as we are living in a generation where gratitude is becoming scarce. Also, I am very thankful for today as we celebrate the groundbreaking of rebuilding the Wesley Hall, for which we have prepared for a long time. On this joyful day, I pray and ask that God will fill each one of you with the grace and peace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is with us today.

I

이 아침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서 3 장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박국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어려서 주일 학교를 다닐 때, 하박국이란 말을 들으면 혹시 호박국이란 말을 잘못 발음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추억입니다. 나중에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자 가운데 한사람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름도 별난 이름이 있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Today, we read Chapter 3 of the Book of Habakkuk in the Old Testament. The name Habakkuk reminds me of an amusing story that happened in my youth. When I heard the word Habakkuk in the Sunday school I was attending, I thought it was mispronounced word of ‘Hobakkuk’ (which means ‘pumpkin soup’ in Korean). When I learned later that Habakkuk was one of the Israelite prophets, I thought it was a weird name.

예언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습니다.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하박국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아마도 주전 600 년 전후, 즉 남왕국 유대의 멸망에 즈음해서 활동했던 예언자로 추정해 봅니다.

Not much was known about the prophet Habakkuk. Many Bible scholars, based on the stories in the Book of Habakkuk, assumed that he was a prophet in the Kingdom of Judah around B.C. 600 when the kingdom was about to fall.

하박국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2 이하에서 하박국은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불의와 강포가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겠습니까? 왜 제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5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빠르고 강한 군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박국은 1:12 이하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이, 즉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십니까?”

The Book of Habakkuk begins with questions to God, “How long, Lord, must I call for help, but You do not listen? Or cry out to You, “Violence!” but You do not save?” (Habakkuk 1:2) For these questions, God answers, “I am raising up the Babylonians, who are swift and fierce” (Habakkuk 1:6). Against His answer, Habakkuk complains to the Lord, “Why do you, who are righteous, tolerate the treacherous? Why are you silent while the wicked, (*the Babylonians*), swallow up those more righteous than themselves, (*the Israelites*)?” (Habakkuk 1:13)

하나님께서는 2:2 이하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이를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Then God replies in Chapter 2, “The revelation awaits an appointed time; it speaks of the end and will not prove false. Though it lingers, wait for it. It will certainly come and will not delay.” (v.3)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v. 14) Therefore, “the righteous person will live by his faithfulness.” (v. 4)

이에 예언자 하박국은 3 장에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서 외칩니다.

A response to this revelation from God, the prophet Habakkuk praises and prays to the Lord in Chapter 3, saying “Repeat them in our day, in our time make them known; in wrath remember mercy.” (v. 2) And at the end of his prayer, he proclaims: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들일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 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 치달게 하신다.”

Though the fig tree does not bud and there are no grapes on the vines,
though the olive crop fails and the fields produce no food,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and no cattle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The Sovereign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feet of a deer,
he enables me to tread on the heights. (vv. 17-19)

여러분, 무슨 이야기 입니까? 비록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문제에 쌓여있고, 여전히 고통과 아픔의 한복판에 있어도, 없고, 없고, 없어도, 나는 주님 안에서 (옛 성경 개역 개정판에 의하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송하며 기도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Dear church members at KUMC, what is he saying here? This is a proclamation of faith that even though I am in the midst of suffering, problems, and pains, or even though I have nothing, I will praise ‘in’ the Lord (or ‘because of’ the Lord according to an older version of translation) and pray to Him.

II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찾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있게 된 것, 생명을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 모두는 동전 하나 손에 쥐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Dear beloved church members at KUMC, thanksgiving is the foundation of Christian life. The life of Christians, who were born again in Christ, is a life of thanksgiving. Our very existence, life itself, is the gift of God. We were born with nothing, even without a coin in our hands, but we have made it this far in the world.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걸어온 우리 인생의 얼룩진 과거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새로운 신분, status 를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Also, we are living a changed life thanks to Jesus Christ. He has forgiven all our sins in the past and given us a new status as sons and daughters of God. We can have eternal hope in God thanks to His unchanging love that surpasses death. All this is possible thanks to Jesus Christ, who is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for us.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편지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골 3:15b)”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살전 5:18)”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the alpha and omega of Christian life is thanks. God called us for a life of gratitude for all things. The Apostle Paul wrote in his letters, "Be thankful (Colossians 3: 15b)."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1 Thessalonians 5:18)."

감사는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살아있으면 거기 행복이 있습니다. 그때 살맛나는 삶의 길이 열립니다. 감사는 행복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감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우리 주님의 처방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면 거기 행복이 깃들지 않겠습니까? “여보, 고마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 할꺼요.” 라는 말을 들으신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배우자가 “누구 맘대로” 하면 곤란합니다만.

Thanksgiving is also the root of our happiness.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if thanksgiving is alive in our lives, so is happiness. When that happens, a path for a worthy life opens up. Thanksgiving is a virus that spreads happiness. Thanksgiving is our Lord's prescription for our happy life. If you could thank each other in your marriage, would there not be happiness? "Honey, thank you. I would marry you even if I were born again." What would you feel when your spouse says this to you? Of course, it would make a different story if your spouse responds like "What if I wouldn't?".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불행하게도 감사는 점점 사라져가고, 불평과 원망, 내 이익을 내세우는 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사, 깊은 감사의 삶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Unfortunately, thanksgiving is disappearing these days; instead complaints, grudges, and the selfish voices are increasing and getting louder. Today, we need to listen to the words of Habakkuk and regain our true and deep gratitude.

(1)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많은 경우 감사의 이유가 있을 때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 사업이 잘 될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도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분명한데도 감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1) First and foremost, we're often thankful with certain reasons. When you regain your health, when your business is going well, when a problem is resolved, and so on. These thanks are also very important today. Many Christians these days are losing their gratitude even though they have clear reasons for being grateful.

누가복음 17 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아와 고침 받은 열명의 한센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고침 받은 10 명 가운데 몇 사람이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한사람, 유대인들이 천대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 여년 전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In Luke, Chapter 17, there's the story of ten lepers Jesus healed. Do you know how many of them came back and thanked Jesus? Only one Samaritan, the Jews despised so much, returned to Jesus to show his gratitude. Dear all, this story is not just a story that happened 2,000 years ago. This is our story today.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이 땅에 찾아와 안정적인 정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모든 일이 잘되어갈 때, 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한국 백성들이 가난을 극복하고 오늘날 이만큼 잘 살게 된 것, 또 우리 모두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이만큼 정착하여 살게 된 것,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를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We, as immigrants who came to this foreign land and settled, should not forget the words in Deuteronomy. Moses warned the Israelites: “Be careful not to forget God when all things are going well after you entered into the land of promise, Canaan, by thinking that you have accomplished on your own strength.” For God gave us the ability to do that. It means do not forget being thankful. It reminds us to be thankful that Koreans have overcome poverty and live abundantly today, and that all of us as immigrants have settled well. We ought to remember that all of these are the grace from the Lord.

(2) 이러한 기초적인 감사에서 한걸음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특별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적인 삶 속에 임하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2) When we step forward from this basic gratitude, we become grateful as we realize the grace of the Lord in everyday life, even without any specific reason.

여러분, 66 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트럭과 부딪치는 큰 사고가 나서 자동차는 전파되었는데, 나는 기적같이 다치지 않고 살아났다면,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한 일 입니다.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66 번 도로를 수십년 운전하고 다녔는데, 한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은 것 보다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If you miraculously survived without being injured when your car is totaled from a collision with a truck on I-66, you would be so thankful, calling Hallelujah. It should be appreciated. But if you have been driving on I- 66 for decades without any accident, is it not supposed to be more wonderful? Is this not more grateful than a survival from a car accident?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새 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 숨쉬기 운동을 오늘도 계속하게 된 것 감사한 일 입니다. 새날,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감사한 일 입니다.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을 보면서,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보면서,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새근새근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감사 드려야 합니다.

I am thankful that I woke up healthy this morning and greeted a new day. I am thankful to continue the most important exercise today, the breathing exercise. It's thankful that we are given a new day and a new life. We must thank the Lord in our hearts as we watch the beautiful sunset, the colorful autumn foliage and grandchildren peacefully sleeping in our arms.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같이 하고 계십니다. 그 일상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그 일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Dear church members at KUMC, God's hand is at work with everything in our lives that we take it as granted. When everyday life is broken, then we realize that the things we thought were normal are from God's grace and His loving touch.

장암 수술을 받으셨던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신 후 회복되시는 과정에서 나와야 할 개스가 안 나와서 한동안 고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이 병실에 들리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목사님, 개스 나왔습니까?” 였습니다. 집도한 선생님이 홍콩에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지에서 전화를 걸면서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은 역시 똑 같았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평상시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뱃속의 개스를 배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유롭게 개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This is a story of a senior pastor who had undergone a colon cancer surgery. The pastor suffered for some time while recovering from the surgery because he could not release gas. When the doctor visited him for daily checkup, the first question he asked was "Pastor, did you release gas?" Even when the doctor was traveling to Hong Kong, he called and asked him the same question. At that time, the pastor realized that discharging of gas in the stomach, which he took it as granted and didn't care much, is such an important function and how thankful he was to be able to release the gas freely.

여러분,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의 눈이 열려 지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민하게 깨닫고, 감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를 찾으면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깃들 틈새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Dear church members at KUMC, I wish that our eyes will be open to the hand of God's grace working in our everyday lives in this season of thanksgiving. I hope that you realize the grace of God who comes to everyday life and live a thankful life. If we find this thanks in our lives, we will find our lives would be filled with joy. Complaints and discontents will diminish.

(3) 이같은 감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더 깊은 감사의 삶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 고난속에서도, 아픔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감사가 감사의 원인이 있는 “Because of, ...때문에”의 감사라면, 이 감사는 “In spite of, 어찌 어찌함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3) Taking one step further from such thanksgiving, there is a life of deeper thanksgiving. This thanksgiving is to give thanks even in the midst of pain, suffering, and failure. If the thanksgiving I told you above is giving thanks ‘because of’ with reason to be thankful, this thanksgiving is giving thanks ‘in spite of.’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드리는 기도와 찬양은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우리에게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없고, 없고, 없어도 하박국은 주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겠다고 외칩니다.

The prayer and praise Habakkuk gives in today's scripture belong to this category. It was neither because of many figs on fig tree nor because of many grapes on the vine. Even though the olive crop fails, even though there are no sheep in the pen or no cattle in the stalls, even though there aren't... aren't... aren't, Habakkuk shouts out he will rejoice in the Lord and be joyful in God his Savior.

여러분, 이같은 감사의 삶을 위해선 적어도 두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만을 보지 말고, 내 삶 전체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 해 전 세상을 떠나신 송원률 장로님께서 병상에서 보내신 마지막 며칠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서는 암으로 고통 중에 계신 이 시간에도 왜 당신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 일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데, 이 점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가”하고. 고통의 순간에 사로잡히시지 않으시고, 평생 임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셨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셨습니다. There are at least two important things for such life of thanksgiving. First, it is to remember the grace of God that I experienced through my whole life, not just focusing on the painful moments I am going through now. I have spent together the last few days of elder Won Ryul Song who passed away from a cancer many years ago. At that time, elder Song told his children clearly why he was thankful for God's grace even in the midst of enormous pain. He said, “The pain I am suffering now is no more than a dot, compared to the grace of God that I experienced in my entire life, so how can I not be grateful for the grace of God that is much greater than this dot?” It was a confession of beautiful faith that remembered the amazing grace of God working in his whole life without being captured by the moment of suffering.

더 깊은 감사의 삶을 위해서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고난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 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하실 수 없습니다.

The second important thing to live a life of deeper thanksgiving is to believe in and trust the love of God in hardship without being shaken. This is never easy to do. Because it is not easy to shake off questioning why God allows such suffering if He loves me. But the Bible says clearly no matter what. It says that God is love. Since God is love itself, it is impossible for Him to not love us.

지금 고난의 원인이나 의미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심술쟁이가 아니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의 고난도 주님 안에서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We may not understand the cause or meaning of hardship now. If God is love, however, our God must not be someone with a mean streak playing a prank on us. Undoubtedly even today's hardship will benefit us in the Lord. The moment of the deepest hardship will become a starting point for God to launch a new history.

그러기에 어느 무명의 시인은 “주님 참 감사합니다”라는 시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That is why an anonymous poet sang like this in a poem called, ‘So grateful to the Lord.’

주님, 참 감사합니다.
So grateful to the Lord.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Lord, even though I ask You for a path to succeed
You gave me weakness to learn obedience.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Lord, even though I ask for health to do great things
You gave me disease to make me do the greater good.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Lord, even though I sought for wealth to live a happy life
You gave me poverty for me to become a wise person.

주님, 나는 만인이 우러르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참하게 만드셔서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Lord, even though I sought for honor to become an honorable person respected and looked up by many
You made me miserable for me to need you only.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어려워 우정을 구했으나
당신은 세계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Lord, even though I sought for friendship feeling difficult to be alone
You gave me a broad heart to love brothers in the world.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구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삶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Lord, even though I asked You for everything that will make my life joyful

You opened a way of life to make all other people joyful

비록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지만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Even though I received none of what I asked You

I am so grateful to the Lord for giving me everything You hoped for me.

III

감사의 계절입니다. 이 계절에 온 가족 모여 터키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감사의 샘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깊이 파서 감사의 샘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아니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다시 찾으십시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It is the season of thanksgiving. It is important for the whole family to gather for turkey and have a great time during this season. If the spring of thanksgiving in our hearts, however, is dried up today, let us dig it up again deeper for the spring of thanksgiving to overflow. Let us find again the life of faith that does not lose thanksgiving in our daily routine, or even in hardship. To give thanks is the beginning and end, or alpha and omega of our Christian life. If there is a last word we can leave at the end of our lives, it would be the word of thanksgiving - the confession of thanksgiving.

독일의 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혀에 암이 퍼져서 이제는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게 된 환자에게 집도하는 의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수술을 받으시면 앞으로 말을 못하게 될 것 입니다. 이제 수술을 받으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지요.” 환자를 둘러싼 수술방 스태프들도 모두 심각해 졌습니다. 나라면 과연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스스로를 향해 묻고 있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환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두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렸습니다.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아멘. This is what happened in a hospital surgery room in Germany to a patient who was about lose a tongue due to a cancer. The surgeon said, “Once this surgery is over, you won’t be able to talk. If there is something you want to say for the last time before surgery, please say it now.” Even the surgeon’s staff surrounding the patient became somber and serious. They were all asking themselves what they would have said if they were the patient. After some time has passed, the patient opened the mouth. Tears streamed down from the patient’s eyes. The patient left these words for the last time, “Lord Jesus,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Lord Jesus, thank You.” Amen.